

CEO MESSAGE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제2창립을 준비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제가 공단에 부임한지도 50일째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임직원 여러분의 일에 대한 열정과 무한한 잠재력을 느끼기에 충분히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단은 2004년 설립이후 전사적 창의혁신을 전개하여 혁신의 루비콘 강을 건넌으며, '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등 5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제공하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전라선 개통, 원주~제천 기공식, 국정감사 수감 등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 열정을 가지고 맡은 일에 헌신해 주신 덕분에 연 투자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고,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88조원을 투자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는 등 철도네상스가 도래하였고, 공단 위상도 높아져 금년 2월에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쌓아온 성과가 부끄러울 만큼 곳곳에서 공단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공단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 최근 일부 간부 비리, 학자금 이종수급, 향아리형 조직 등의 문제로 공단이 부패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운영을 고려하지 않는 건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분기기 장애와 시정조치 장기지연, 심각한 부채문제 해결 노력 미흡 등으로 인해 우리 공단과 철도공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의 발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운영기관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 충분한 협의없이 수요가 적거나 신규 창출이 곤란한 노선에 열차운행을 고려하지 않고 철도를 건설하고 있어 투자효율성이 저하되고,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장애도 9개월이 다 되도록 하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공단의 전문성과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으며, 누적부채 17조원, 금융부채가 12조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지자체 등에 끌려다니는 소극적 재산개발, 선로사용료 극대화 노력 미흡 등 자구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붕락사고와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이설 구간 식성터널에서의 최근 외해사고로 철도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데도 일부이진 하지만 직원들의 음해, 투서로 조직의 결집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過而不改 是謂過也. "하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보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공단을 만든다는 각오로 업무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단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도 임기중 공단의 발전을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핵심임무인 철도건설과 시설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철도전문조직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정부는 2020년까지 4,934km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단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철도를 건설하여 정부정책을 차질없이 실현하고, 완공위주의 집중 투자로 효율성을 높여 선로사용료 징수를 극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현장 감독자는 시공뿐 아니라 안전문제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완벽한 안전점검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감독자, 부장, 차장, 분부장 등 계층별 수행업무를 명확히 하고, 철저히 준수한다면 무재해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한 시설을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수익창출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단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수익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영자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로는 금융부채 이자 19%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함께 역세권 개발과 같은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단은 방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개발권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은 지자체에서 먼저 발표하고 공단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령 공단이 개발계획을 세웠어도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



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규모 역세권 개발, 복합 환승센터 설치 등 개발사업을 본격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해외사업을 확대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2005년 중국에 처음 진출한 이래 11개 노선 3,800km의 기술자문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철도기술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핵심자재 국산화를 조속히 완료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해외사업 수주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3대 경영방향이 제2창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목표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우리 모두의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의 경영방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본과 원칙'입니다.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공정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시행하고 지자체의 강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창조와 도전'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임할 때는 현재까지 고수했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고 외부정보는 많이 접함으로써 창조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신뢰와 상생'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공생발전을 선도하여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공기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하에서 인사와 조직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사는 성과, 청렴, 능력, 인간성이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근무시간내 자기 일을 완수하고, 남은 시간에 관련 정보수집,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임직원을 가장 유능하게 보며, 인사에 최우선 고려할 것입니다.

시간의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의 경우 업무량이 많고 성과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능한 직원일 것이며, 이 경우 유능한 간부는 신속하게 업무량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쁘다고만 하는 직원은 상대적으로 덜 유능할 것입니다. 그런 기준하에서 보면 업무성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며, 전체 성과물에 대해 차등배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조직에는 위기가 닥칩니다. 이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원여러분께서 저의 경영방침에 공감하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공단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이 여과없이 외부로 비춰지지 않도록 결속력을 강화하고 외부에는 단결된 공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을 하고, 국민에게 생소한 공단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철도네상스라는 기회의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옳다고 따라 주신다면 머지않아 기회의 땅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철도산업 남아시아 철도시장 진출 시동

- 네팔 전기철도건설 실시설계용역 수주 -

해외사업본부(주)정석엔지니어링 및 (주)건화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네팔 공공사업부에서 발주한 시마라~바디바스(Simara~Bardibas)와 1개 구간, 총136km의 전기철도 실시설계용역 입찰에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및 가격제안서 개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금번사업은 네팔정부에서 인도와의 연결철도 건설을 통해 여객 및 화물 이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써 프랑스 및 인도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외사업본부에 의하면 10월말까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12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 ▲지형 및 토질 조사 ▲토목, 신호, 통신, 역사 등 분야별 실시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게 된다.

공단은 그동안 중국 철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감리 및 엔지니어링자문 분야에서 11건, 총504억원 규모의 수주성과를 이룬바 있으며, 향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이 철도개량 및 고속철도 건설 등 철도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금번 네팔 전기철도 실시설계사업 수주를 발판으로 삼아 한국철도산업의 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사업본부 김재홍 기자>



공단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다!

- 2011년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수상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처(처장 박인서)는 지난 6일 GRI와 한국표준협회 주최하는 2011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을 수상하였다.

공단은 일반국민 1,941명이 참여하여 2개월 동안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의 지속가능성, 완전성, 균형성, 신뢰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수상은 2004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번 수상은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국민이 인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적 성과로는, 5개 건설사업의 성공적 개통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경춘선 복선전철, 경전선 삼랑진~마산 복선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전구간, 부산

환경적 성과로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과 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호남고속철도 CDM 사업 완료 시 연 30억원, 21년간 총 630

억원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예상되고, 경전선 폐선부지에 대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결과 환경부 주관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하였다.

사회적 성과로는, 동반성장을 통한 공생발전, 고객만족 경영 체계 확립,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이 있다. 업무 특성에 적합한 공정사회 구현전략을 추진 중이며, 올해 6월 공공기관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하였고, 국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김광재 이사장은 "금번 수상은 공단 임직원이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본다"며 수상소신향 배후철도 등 5개 사업을 2010년에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글로벌 철도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공단은 향후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단의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소통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 양희연 기자>



공단, '호남고속철도 차량' 국제입찰 시행

- 25편성 2014년까지 납품 발주 -

공단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에 맞춰 안전하고 고장없는 고품질의 고속철도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고속차량 25편성(1편성 당 10량)을 2014년 말까지 납품하도록 국제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금번 차량도입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시속 300km이상 고속철도 차량제작 경험이 있는 모든 차량공급자에게 개방한 것은 경쟁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고품질의 고속차량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속철도차량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입찰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량공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지난 2011년 7월 26일 고속철도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기술사양 작성, 설계검토, 제작감독 등 기술적인 사항은 코레일이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공단은 사업비 조달 및 공정관리와 함께 고속차량과 궤도, 전력공급·열차제어·열차무선 시스템 등 고속철도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담당함으로써 호남고속철도의 완벽한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구간 중 익산~정읍 구간(40km)을 조기에 완료하여 충분한 시운전을 시행함으로써 고속철도차량 성능 뿐 아니라, 고속차량과 궤도·전력공급·열차제어 시스템 등 호남고속철도 전체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우식 차량계획처장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개통과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 공단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고속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공단은 10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40여일간 공단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정부조달시스템(G2B)을 통해 공고하였으며, 금년 중에 차량공급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구매사업본부TF 이은미 기자>



'12년 관리비 예산편성계획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재무건전성 개선 방향으로 오는 12월 확정 -

기획조정실(실장 강근식)은 지난 7일 각 본부 예산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하여 '12년 관리비 예산편성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편성(안)은 '11년 관리비 예산 1,788억원 대비 22억 감액한 1,766억원으로 방안 경영방식 및 지출역제 등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정부의 국고출연금은 전년 675억원에서 74억원이 증액된 749억원으로 편성하여 증액된 재원은 영남사육건비에 투자할 계획을 설명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해외투자펀드금액 조정(40~30억), KR인재개발원 예산 별도 편성,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산개발비 예산증액, 정부지침에 의해 몇 번째 동결된 경상경비 예산의 소속별 합리적 편성방안 마련 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및 토의하였다.

기획조정실은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실행예산편성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12년도 관리비 예산편성계획'을 오는 1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실 박종구 기자>

